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_Vol.3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9 772765 068007
ISSN 2765-0685

AND

FDCA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대상 박인희 몽돌이사랑(서양화)

Contents

4p
기분 좋은 만남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윤희식위원장 인터뷰



8p
장예총의 가족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15p
장예총이 하는 일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24p
휠체어벤치
WHEELCHAIR BENCH
한강 / 자라섬



26p
특별기고
장애예술인지원법의
도약을 기대하며
장서희 변호사

28p
장예총 연구실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33p
장예총 문학
문학상 대상 수상작 '까망'
이대연

발행처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발행인
홍이석

편집인
고재오

편집실장
윤혜원

디자인
디자인 달리

홈페이지
www.fdca.or.kr

· 본 소식지는 장예총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휠체어 벤치는 벤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하는 공간, 힐링, 휴식 등을 통해 휠체어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장예총에서는 휠체어 벤치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인 서울 세빛섬과 가평 자라섬에 기증하였습니다.

후원안내 장예총은 장애예술단체지원사업, 장애예술인교육사업, 장애예술단체정책지원사업, 장애예술인복지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장애예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합니다.

후원계좌 후원금통장 하나은행 292-910008-79204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기부금통장 하나은행 390-910004-48405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우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노플렉스 401호 / 전화 : 02-304-6211 / 팩스 : 02-304-6311 / 이메일 : jangyechong@fdca.or.kr

기분 좋은 만남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윤희식 위원장과 따뜻한 시간

제법 차가운 바람이 맴돌던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더불어민주당사가 위치한 여의도에 도착했다. 코끝을 스치는 찬 기운을 녹여준 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윤희식 위원장의 환한 웃음과 재치 있는 달변이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법안과 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장애인의 행복을 위한 가능성으로 끌어안는 윤 위원장의 듬직한 마음 씀씀이에 한결 부드럽게 흘러갔다. 때아닌 바이러스의 출몰로 캄캄한 마음을, 좌절이 아닌 희망으로 물들이는 윤 위원장의 밝은 에너지가 질문과 답변 사이에 단단히 뿌리 내린 시간을 전한다.

「 희소식, 윤희식 」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는 순간은 때론 설렘으로 때론 기대로 다가온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과 내 이름 석 자 사이에 어떤 문장을 배치할지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터. 이 순간 분명한 건, 그 짧은 문장 안에는 타인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가치가 깃든다는 사실이다.

"안녕하세요. 희소식, 윤희식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름 앞에 '희소식'이라는 단어를 안배한 윤희식 위원장이 전하고 싶은 가치를 대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바로 긍정의 에너지였다. 힘 있는 목소리, 화사한 미소, 인터뷰어의 기분을 살피는 배려는 희망과 닮은 색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 웹진 AND의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위축되고 소외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문화와 예술을 비롯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만들어나가야 할 텐데요. 제가 문화예술 분야의 문외한입니다만, 앞으로 면밀히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어떤 문화 활동을 할 것인가, 그 활동을 이어감에 있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가 지역에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고, 지자체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부터 살펴야겠죠. 특히 이를 위한 법안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진 법안들은 지역 사회에 어떻게 접목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전국장애인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론 」

2020년 10월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분기점을 맞이한 계절이었다. 새로운 얼굴로 윤희식 위원장이 선출되어 활기차고 진취적인 활동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윤희식 위원장의 시대를 맞은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제가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변인 시절에 뜻하지 않게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며 보냈습니다. 만들어놓은 정책들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장이 아니다 보니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제가 아주 이를 갈고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위상 강화는 뭐냐. 조직이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약도 조직 확대에 따른 위상 강화였어요. 17개 시도당을 독립적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 외 253개 지역위원회의 장애인위원회 역시 완전한 조직을 구성하겠다. 저희 방향과 정책이 이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라며 좌중에 웃음을 안겨준 윤희식 위원장은 아직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그만큼 하고 싶은 일도, 이루고 싶은 비전도 드높기 때문이리라.

“전국위원회라는 건 선출직이에요. 때문에 당의 업무에 개입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곧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기획단부터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일정 부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분을 명확하게 확보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일례로 서울은 비례의원 후보가 10명씩 돼요. 우리가 장애인 비례의원을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을 꼭 만들어야겠죠. 여태껏 당 활동을 하면서 당에 대한 흐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공천 심사의원도 해봤기 때문에 아마 다른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광역기초 의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포부를 통해 현재에 멈추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려는 도약을 보여준 윤희식 위원장. 그런 그가 앞으로 개발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저는 장애인 정책은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근래에 장애인 비하 발언이 몇 번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엔 당을 떠나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자. 그 정당, 단체, 기관, 발언 당사자 쪽에 집중적으로 항의 방문도 하자는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우리 정당의 대통령 공약에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가 꼭 들어가게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상황 상황마다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현재 이 법안이 큰 틀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상황 상황의 이슈를 각 의원실과 또 민주당 최혜영 비례의원과 협의해서 대응할 것이고요. 또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적, 주거적 측면도 들여다봐야겠죠. 각기 다른 주제에 맞는 의원과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키기 위해 간담회를 요청하고, 간담회를 통해 주제와 방향성이 정해지면 토론회를 진행해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 가능성에 거는 기대 」

시절이 침체되면 응당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해지기 마련이다. 허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밝고 환하게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 듣기 좋은 음악, 눈에 들어오는 그림으로 가라앉은 내면에 한 줄기 빛을 드리우는 호사는 의무를 체험으로 바꾸는 최전선에 위치한다. 윤희식 위원장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고민한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해 들어보자.

"장애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이나 예술 관련 정책도 개발하고 예산도 만들어야 하겠고요. 장예총에서 제시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건립'과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그리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아트플랫폼인 <아트링커> 구축'이 있잖습니까. 공간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하고 있거든요. 이 공간 안에서 장애인들이 소통하고 요구사항을 만들어나가면 우리가 받아서 입법화도 시키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 있는 장애인 의원들이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들께 전달하면 실행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기대를 드러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윤희식 위원장의 역할과 자세는 그야말로 역동적이었다. 2020년에 통과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방향 제시에도 시원한 생각을 들려주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장애인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장애예술인이 활동하는 터전을 만들어야겠고요.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금 조성 아니겠어요? 기금이 조성되면 공간 건립과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더불어 예술인을 위한 단체들의 지원법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전문성 있는 단체들을 전담기관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단체 쪽에 역량이 실리면 예술인 지원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직 못다 한 이야기는 윤희식 위원장이 펼쳐 보일 장밋빛 미래가 대신 속삭여주리라 믿으며, 겨울을 녹일 듯 따뜻했던 시간이 여러분께 충분히 가 닿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AND 독자를 위한 끝인사를 부탁했다.

"장애인위원회의 행보가 그간 복지 쪽에 힘을 싣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지는 실링이 꽉 차 있어요. 반면 문화와 예술, 체육 쪽은 아직까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예산 여유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복지 예산이 총 558조 원인데요. 90조가 보건복지부예요. 그 외 예산은 다른 부처에 있을 텐데, 생각보다 타 부처에 장애인과 관련 있는 예산이 많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간과하고 있어요.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 장예총이 전문이시니까 여러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는 상황을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 사진-조일연



장예총의 가족

장예총 회원단체를 소개합니다.
장예총은 전국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연합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전문예술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릴레이로 소개될 단체는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와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와입니다.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빛소리친구들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사)한국장애인서예협회	(사)꿈틔움
(사)우리들의 눈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since 1992

먼저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소식지 AND와 독자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흔히 한해를 마감할 때 우리는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말일 테지만 결코 넘지 못할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도 아닌지라, 지치기는 해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쉽게 버릴 수도 없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우리 삶 가운데 돌려받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되거나, 아예 지워버린 시간으로 남아겠지만 코로나19를 통해 내 자신만 아니라 이웃 까지 챙겨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총연합회체제를 갖추고 함께 고민하며 호흡을 맞추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한 일뿐이라고 먼저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게 한 해를 마무리 한 것처럼 새해에는 더욱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협력하시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같은 꿈을 꾸고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로 더 크게 성장하시기를 새해 인사로 드립니다.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의 설립목적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본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진흥회는 척수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척수장애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다른 장애인 예술단체도 설립과정과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시작부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진흥회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화합과 창의를 실천하려고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노력한 결실들이 이제 조금씩 빛을 보이는 듯해서 세상 모든 일이 때와 시간이 필요하며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합니다.

척수손상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레바퀴는 척수장애인(휠체어 이용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제약과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들로 추진 방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에는 ‘그림사랑’이라는 화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15명 정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화실에서 그림(조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전시회에 참여하여 큰 족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또 하나의 밝은 세상 전’을 통해 전 회원들의 그림과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룹전을 빠짐없이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세대세브란스재활병원 복도에 회원들의 그림을 전시함으로 입원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감동과 재활의 의지를 북돋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면 외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조모임을 1개월에 두 번(2주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 안부도 묻고 대화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활정보를 나누는 매우 필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 쿠키를 만들거나, 향초를 만드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용변처리나 환경(화장실 접근성, 침대 사용 등)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여행을 꺼리는 회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전케 하는 재활 차원에서 매우 귀중한 시간으로 1박 2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 사업으로 UCC 공모전을 하셨고, 지금은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영화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UCC공모사업은 2009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10년 넘게, 총 10회를 넘게 진행한 영화(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아도 UCC라는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에 장애인 예술진흥사업으로 시작했을 때 누구나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치부했지만 도전과 용기, 열정의 아이콘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여 일군 쾌거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UCC영상공모전을 업그레이드판 장애인 예술 사업으로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를 구상하여 개최하였고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본 영화제는 영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교육을 통해 소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을 통해 함께하는 창의발전소로 세계 최초로 기획한 장애인 영화제입니다. 올해 영화제 슬로건 <영화로 잇다 마음을 잇다 (Contact by Movie)>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콘텐츠 제작전문가로 구성된 비장애인 교강사의 영화교육을 통해 미디어에 관심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우수한 콘텐츠제작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차 산업 핵심 인프라인 콘텐츠 산업에 보탬이 되는 일이고 오늘날 생활필수품인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신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과 제작과정을 거쳐 만든 영화를 영화축제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전문 상영관에서 상영하고 시상하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가 3회를 거쳐 오며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스마트폰영화제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장애인 예술의 시금석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패기로 지금까지 교류하는 국내외 스마트폰영화제와 연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스마트폰영화제를 조직하여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을 진작시키고 국제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장애인에게도 꿈과 용기를 주는 영상예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제3회 대한민국 패럴스마트폰영화제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환경에 대처하는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만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스마트폰영화 특징 중 하나가 디지털콘텐츠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에서 우연히 정한 슬로건은 아니지만 Contact by Movie에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콘텍트 시대(대면사회)와 언텍트 시대(비대면 사회)를 아우르는 온텍트 시대(융합사회)를 포괄하였습니다. 랜선 영화관을 긴급하게 개설하여 유튜브 채널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면 행사의 한계를 극복했고,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환경의 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는 UCC영상제를 진행하면서 터득한 운영의 묘수들이 절묘하게 접목되었고 운영 요원들의 단합된 힘과 참신한 기획력과 적절한 대응력의 결실이었음을 이 기회에 밝혀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어느 나라, 어떤 조직, 무슨 행사, 그 누구라도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는 첫째, 소통의 중요성. 둘째, 공유의 가치. 셋째, 공감의 힘. 넷째, 창의의 확장성이 달라진 환경에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활동제한을 받고 있는 모든 장애예술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꿈꾸는 자가 세상을 소유하고,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예술은 꿈으로 시작하고 꿈으로 매듭을 짓는 행위입니다. 새해에는 내가 꿀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꿈을 소유하는 장애인 예술가로 대성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먼저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소식지 AND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장애문화예술단체의 권익옹호와 장애예술인의 활동영역확대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장애인문화예술정보지 AND(Art & Disability)의 발행을 환영하며, 장애예술인을 비롯한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의 설립목적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우리 협회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돕고, 문화를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어울림의 장을 만들어 가는 한편, 장애예술인이 주인공이 되는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문화 예술분야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위 선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는 2008년 문화예술전문단체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을 전신으로 창단된 법인입니다. 2016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기획하여 매월 1회 장애인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세상에 하나뿐인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대중문화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 장애인 스타발굴 프로젝트 이음가요제를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음가요제는 ‘스토리를 노래하라’란 슬로건을 걸고, 대상 수상자에게 디지털 싱글 음반 제작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일수록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음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을 장애예술인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아티스트들에게 콘서트를 선물하는 “열린 콘서트 선물”을 통해 아마추어 및 전문예술인들에게 작품발표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궁극적으로 장애인문화예술의 수월성 확보와 전문예술인 양성, 문화예술을 통한 직업 창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장애인미술교류전을 개최하게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프랑스에서 개최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추진해 온 한·중·일장애인미술교류전이 2018년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19년과 2020년 사업 공모에 우리 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하나뿐인 전시” 행사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참여 작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전시 전담 인사가 우리 장애예술가의 작품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다음해인 올해 루브르박물관 전시 초청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금년행사를 “2020국제장애인미술교류전-에이블아트 루브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되는 좋은 기회이고,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예술이 유럽진출 하는 데에 발판으로 삼아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현지상황 악화로 인해 오프라인 전시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번 전시를 위해 노력한 국내 작가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라인 영상전시로 대체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전시가 끝나고 작품들이 국내에 돌아오면 성과보고회 겸 국내 전시회를 개최하고 11월 27일에는 “2020미술 분야 비대면 활동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장애인미술포럼”을 개최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은 물론, 예술 활동에도 많은 제약과 변화를 줄 것이라 생각해 지금 시대에 꼭 논의되어야 할 포럼주제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스웨덴,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포럼 관련 영상은 추후 복지tv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예술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만의 대응 방법이 있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에는 계획한 공연, 장애인식교육 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들을 놓고 고민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대책수립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을 뛰어넘는 영상공연과 강의 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식교육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인 zoom을 활용하여 강의,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공연을 중계하는 등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기대되는 변화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6월,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일본도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법이 제정된 지 불과 3~4년 정도이니 그렇게 늦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이제 우리



수준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의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장예총이 중심이 되어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1981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IYDP)와 1988년의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거쳐 비로소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40여년 만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수준이 선진국에 다다랐다는 것은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바로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관련법이 제정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장애인문화예술의 현안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장애예술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법이 집행 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행착오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예술 관계자 분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활동제한을 받고있는 모든 장애예술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국가에서 정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보내고 나면 앞으로 더욱 가치 있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총이 하는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전국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유대 강화와 협력 교류로 장애예술인이 예술의 주체로서 활동하며 예술권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 활동을 전문 직종으로 개발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자립생활을 이루고,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선진문화 사회의 실현으로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예총이 하는일



1. 대상-바디하모니(현대무용)

제8회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경연대회

본선 7/14-7/16
노량진CTS홀

어워즈 8/20
KBS아트홀

Special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는 장애인의 공연예술 경연을 통한 예술적 가치 극대화와 비장애인과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 공유, 신진 장애예술인의 발굴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악, 클래식, 실용음악, 무용, 연극·뮤지컬 총 5개의 경연분야로 이루어진 스페셜K는 경연대회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능동적인 예술 활동과 잠재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장애예술인으로 육성하여 장애예술인으로서 능동적인 예술 활동 및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복지관 등 대부분의 시설들이 휴관됨에 따라 경연 참가를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총 106팀, 200여명의 장애예술인이 경연에 지원 하면서 참여 팀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심사를 통해 예선을 통과한 클래식 17팀, 실용음악 11팀, 국악 8팀, 무용 6팀, 연극·뮤지컬 3팀, 총 45팀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노량진에 위치한 CTS아트홀에서 본선 경연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클래식 부분 금상은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로 이루어진 SEM듀오, 국악은 사물놀이 공연을 펼친 한마음민속공연단, 실용음악은 그랑그랑밴드, 무용은 현대무용팀 바디하모니, 연극·뮤지컬은 극단 얼쑤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각 부문의 금상 5팀과 심사위원 추천 4팀,



2. 영아티스트 -황주희(휠체어 댄스)



3. Talent상-강혜라(한국무용)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SEM 듀오(클래식)



5. Passion상-국장협 완주문화예술학교(국악)



6. Performance상-얼쑤(연극)

총 9팀이 8월 20일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망의 어워즈 결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편 스페셜K 대상(국회의장상)에는 최초로 무용 부문의 바디하모니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클래식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SEM 듀오가, 상임대표상에는 클래식 부문에서 성악으로 경연에 참가한 강유경씨가 수상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의 문화예술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고 공연·행사가 취소되었지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조직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무관중 행사 진행 및 공연장 출입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대기실 방역 수칙 준수, 개인별 손소독제 지급 등 정부 코로나 19 매뉴얼보다 한층 더 강화하여 코로나 19가 일상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공연예술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기량을 닦고 무대에 설수 있는 때가 오길 기대합니다.

장예총이 하는일



제30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8/18 – 8/22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로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은 1991년 곰두리 문학상·미술대전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장애인 문학 및 미술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사)한국장애인서예협회,(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를 거쳐 지난 2017년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의 주최·주관 진행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왔습니다. 장애예술인의 문학적·미술적 잠재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며, 전문작가로의 등용 기회와 지속적인 활동 도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학상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사람 / 나이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운문부(시, 동시) / 산문부(단편소설, 중편소설, 수필, 동화)로 나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대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사람 / 나이 제한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장애미술인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각, 전·서각, 문인화, 서예부문으로 나눠 공모를 받으며 미발표 작품에 한해 온라인 그리고 실물 심사를 거쳐 전시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온라인 전시, 휴대폰으로 만나는 공연 등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진행 중인 만큼 시대변화에 발맞춰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장예총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관람객들에게 안전한 전시를 제공했습니다.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은 이대연(산문부 단편소설)의 작품 '까망'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대상

· 이대연(청각)
· 까망(단편소설/산문부)

이대연작가는 2014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과 2019년 부산일보 해양문학상 소설부문을 수상하며 꾸준한 활동을 선보였다. 작가의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출품작 단편 소설 '까망'은 실의에 빠진 영화감독이 친구의 죽음을 통해 빛과 어둠, 소통의 의미를 찾아가며 삶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는 서사를 보여준다.

'까망'은 독창성, 예술성, 대중성 외 소설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대상

박인희(청각)
· 몽돌이사랑(서양화) · 아트쉬지, 물감

박인희 작가는 국립목포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단체전, 초대전 등 활발한 활동을 선보인 작가로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몽돌이 사랑'은 바닷가의 빛나는 몽돌, 작은 돌멩이부터 큰 것까지 각양각색과 다양한 모양이 우리의 마음을 이끈다. 아름다운 몽돌들의 세상을 작가의 눈으로 들어다 본 것이다.

최우수상에는 ▲조요섭_어멍(시) ▲이현이_구름이 전해주는 말(수필), 운문부 우수상에는 ▲강성재_끈(시) ▲이승일_별님이 놀러온 날(동시) ▲박목우_그늘의 영역(시), 산문부 우수상에는 ▲한승완_본능의 역습(단편소설) ▲박목우_화분이 될래요(단편소설) ▲김경식_사진 한 장(수필)이 수상을 했습니다.

제30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은 박인희(서양화)의 작품 '몽돌이사랑'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우수상에는 ▲고상호_영정중월 <이규보선생시> (서예), 우수상에는 ▲김남우_은혜(서양화) ▲이영미_늘 푸른소나무(문인화) ▲윤경아_그녀의방(한국화), 장려상에는 ▲최원우_일상1(서양화) ▲윤진석_내 머릿속의 시계들 2(서양화) ▲정지원_우리 가족(공예) ▲임상철_사회적 거리두기(조각) ▲김민수_빈집(서예) ▲방진호_향중별유운(문인화)이 수상했습니다.
매년 추천작가 중 1인이 선별되어 다음 해 초대작가로 임명되는 특별상에는 ▲성정자_회재선생시



무위(서예)가 수상, 특선(18인), 입선(40인) 수상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장예총은 신진 장애예술인 발굴 및 창작활동 활성화로 장애 문학·미술계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문인 및 미술인들의 예술활동에 큰 활력소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장예총이 하는일



1. 개막공연_Creative Revolution 창조적인 혁명_HONOR BREAKERZ X 김용우 X 최문정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9/23 – 9/25
가평 자라섬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작 되었습니다. 축제의 명칭이 A⁺ Festival 인데요. A⁺는 장애예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Ability, 열린 접근성의 Accessibility, 활기찬 역동성의 Activity와 예술의 A, 이를 통해 모두 함께하고자 하는 All together의 A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지향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12회를 맞이하는 올해의 테마는 '장애 예술과 마주하다, 경계와 마주하다, 다름을 마주하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은 "마주하다"입니다. 마주하다라는 것은 서로를 마주보는 행위이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 편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처의 극복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축제의 많은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개최장소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축제 참가자 및 관람객의 특성과 행사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행사장 진입 및 내부 동선이 장애친화적인 환경이어야 하며,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지난 2017년부터 장애예술의 대중성 확대와 장애예술인의 자부심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광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대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선정한 장소는 여의도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장소 대관이 불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실한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여의도 공원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공공시설 대관 및 행사개최가 취소되면서 대체 장소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가평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과 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최종적으로 자라섬을 축제 개최 장소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2. 당신과함께라서행복합니다-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3. 홍보대사-러블리즈, 핑크히포







4. 행사 사전 방역

5. 자라섬 행사장 전경

6. 시(詩)가 있는 국악쇼-한국장애예술인협회

두 번째는 진행방식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3일간 3000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여 50개의 부스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한 100여개의 세부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야외기준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행사 개최가 불가하게 되면서 진행방법과 프로그램 구성을 변경하여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홍이석)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장애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고송 공모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포터즈 2cm 활동, 장애인식 개선캠페인 휠체어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축제가 일반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걸그룹 러블리즈와 캐릭터 핑크히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공모전 대상수상 작인 '지금 이곳, 바로 여기 A⁺ Festival'을 러블리즈가 직접 부르고, 이 노래에 맞춰 핑크히포가 춤을 추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장애예술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나 아쉽게도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가평 자라섬에서 개막식을 비롯해 6개의 장애예술전문단체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아쉽게도 시민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행사 내용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장예총 공식

장애총이 하는일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1. 서포터즈 '2cm' 발대식 (2020.07.23)

서포터즈 2cm 로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이 공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휠체어댄스와 비보이의 만남 'Creative Revolution', 조선시대 우의정에 올랐던 장애인 허조의 이야기를 각색한 '역사에 길을 묻다', 예술의 표현에 있어서 경계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용 공연 '길에서 놀자',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함께 울려퍼지는 하모니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노래와 연기, 춤이 하나되어 즐기는 소원을 이뤄주는 뮤지컬 '초밥', 장애를 극복하고 써내려간 시와 국악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서정성에 스토리를 더한 '시가 있는 국악마당', 다양한 곡과 장르를 넘나들며 변주와 재구성을 통해 다채롭게 오마주한 '오감의 마주침', 장애예술가의 흥겨운 트로트 무대 'A+ 트롯 콘서트' 등 장애예술인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는 다양한 공연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시프로그램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영상이 있는데요.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그려낸 장애미술가의 작품을 전시한 '나, 너 그리고 우리', 장애서예가의 작품과 우리고유의 유산인 등과의 만남 '서화 한지등 전시', 세계적인 명화를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제작한 베리어프리 미술전시 '더 가까이',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역사문화 향유를 위한 촉각유물 '손으로 보는 우리 역사', 시각장애 학생들이 실제 살아있는 코끼리를 만지고 체험한 후 만들었던 코끼리 작품들과 대형 공동 작품인 '코끼리 만지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베리어프리 영화 '장애 미디어로 잇다', 장애인 미술가 양성을 위한 상상융합 미술축제 '아티스트의 탄생', 휠체어 모양의 벤치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2. 뮤지컬 초밥-한국장애인문화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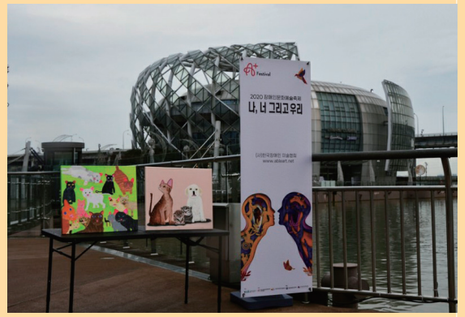


4.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3. 오감의 마주침-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캠페인 '휠체어벤치', 코로나19로 인해 지친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국내·외 예술인이 함께 진행한 '댄스챌린지', 일상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진행된 '서포터즈 2cm'의 활동영상 등 다양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는 행사장에 방문하지 못한 일반 시민분들이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의 내용을 손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막식의 온라인 관람을 위해 춤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하였고, 모든 프로그램의 녹화영상을 KBS Life 채널을 통해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이를 활용한 웹브로슈어를 제작하였습니다. 웹브로슈어는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실행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저시력 장애인 및 색각 이상자를 위해 글씨 크기의 확대와 축소, 고대비, 역상대비 등의 기능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험에는 비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소하다고 넘겨버리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문턱, 좁은 출입문, 계단, 엘리베이터 버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애예술은 이러한 경험들을 예술로 승화시켜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거리두기, 언택트(Un-tact)를 이야기 하며 일상을 되찾기를 기대하는 요즘, 마주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세빛섬 전시-한국장애인미술협회 (9/09 - 9/15)

휠체어벤치

WHEELCHAIR BE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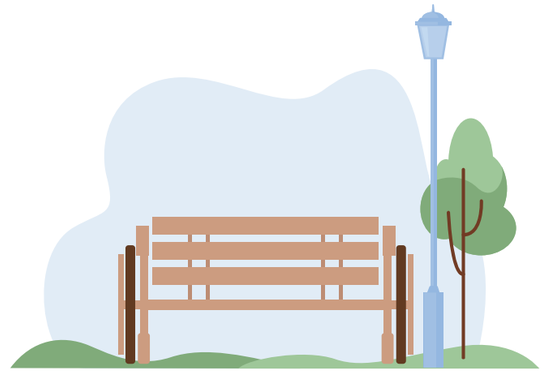
한강 세빛섬

한강의 아름다운 인공섬인
세빛섬에 있는
휠체어벤치의 모습입니다.



휠체어는 환자, 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활동보조기구입니다. 휠체어는 바퀴가 달려있는 기구의 특성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경사진 곳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휠체어의 특성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수동적, 불가능입니다. 이러한 편견 때문에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휠체어 벤치는 벤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함께 하는 공간, 힐링, 휴식 등)를 통해 휠체어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기획되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벤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휠체어의 외형이 표현되도록 노력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휠체어의 바퀴를 달고 있는 벤치의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휠체어 벤치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 기증하였는데요. 현재는 서울 세빛섬과 가평 자라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평 자라섬

아름다운 강과 산을 배경으로
하는 가평 자라섬에 있는
휠체어벤치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지친 일상에서의 힐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특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하며, 그곳에서 행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순간이 모두에게 긍정적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의 도약을 기대하며

특별기고

장서희 (변호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객원교수)

영화학과 소비자학을 전공한 변호사로서 문화예술산업과 장애예술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관련 연구와 강연에 힘쓰고 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2월 10일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최초의 개별 법률이 드디어 시행되었다. 수년 간의 노력으로 탄생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제정은 '장애예술인'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정립하였으며, 장애예술인 지원을 고유목적으로 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책무를 부여했으며, 특히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과 문화시설의 접근성 제고를 명문화하였다. 눈여겨볼 것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부분이다(제13조 내지 14조). 이는 장애예술인 개인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입법으로 보인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주요 목적은 장애예술인이 직면하는 최대 문제라 할 경제적 어려움과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물리적 어려움을 각기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사업과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사업이 개별 사업의 양축을 이룬다. 그렇다면 이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 전담기관을 적절히 발굴해내는 일이야말로 법의 실효성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자. 장애예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예술인의 매칭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대상인 장애예술인 개인과의 접점을 찾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런 만큼 제도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인력풀이 구축되어 기업과의 매칭이 효율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와 산하 장애인전문예술회원단체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예총은 전국의 장애예술인단체가 연합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각 단체를 통해 전국 각지의 장애예술인들과의 방대한 연결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곧바로 장애예술인 고용을 원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가장 유력한 인력풀로 기능할 수 있다.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사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장예총의 문화예술회원단체들은 다년간 실질적인 장애문화예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바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애로점과 문화예술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는 데 요구되는 사항을 다방면의 장애예술인 시각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살려서 문화시설 개선 업무에 필요한 문화시설의 현황 분석과 개선 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어느 장애인 단체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던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법령이 마련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입법만으로는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맞아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58% 증가한 24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산 증가분에 해당하는 84억원이 장애예술인 공연장 조성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예술인 활동 자체를 위한 예산 증대는 아예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결과 정작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가장 기초작업이라 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그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일에 SNS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관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표명한바 있는데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장애예술인지원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태도를 볼 때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미덥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전담기관 지정에 있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장애예술계와 장애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현장의 요구와 정책의 중간지점에서 장애예술계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들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거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지금의 명분을 넘어서 실효적인 장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애체육에 준하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적절한 전담기관의 지정, 또한 이 모두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두루 요구된다 하겠다. 부디 이 법을 통해서 통해 이 땅의 장애예술인이 그 동안의 짙은 그늘에서 벗어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눈부신 예술적 성취를 이뤄내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장예총 연구실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및 자문위원 인터뷰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는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장애예술인이 관람객이 아닌 공연자로서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 및 제도적인 정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문화집회시설의 경우 장애인 관람객을 중심으로 시설물 등의 편의시설을 개보수 및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설치율이 적정 설치율 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관람객이 아닌 장애예술인 공연자를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그 개념조차 논의된 적이 없다. 우리 장예총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의 연합회로써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을 중심으로 장애예술 공연자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공연장의 베리어프리 시설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장애예술인 공연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성 현황 조사 및 개선 필요 항목을 검토하였다. 지체, 발달, 청각, 시각 장애의 4가지 장애유형별 공연자를 대상으로 자문및 설문 조사를 진행, 공연장 이용에 대하여 장애유형별로 검토했다. 조사 기간 중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문화집회시설이 휴관하여 현장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장애예술인들과 대면 인터뷰도 어려웠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진과 함께 설문을 개발하고 그 의견을 인터넷 상으로 받아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AND 3호에서는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와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담으려 한다.



Q.1 이번 연구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에 대한 요구가 과거에는 관람객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장애예술공연자로 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고, 공간 계획과 제도상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해 향후 이와 관련된 시설적인 부분과 운영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정책개선과 세부항목 개선으로 이어져, 장애예술공연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류상오 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총괄)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가 관람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연장이라는 건물 단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람객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있고, 공연자 공간(백스테이지)은 편의시설 설치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장애예술인이 공연을 하는데 있어 공연자 공간(백스테이지)에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강병곤 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Q.2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 되었습니까?

강 : 연구는 두 가지를 비교 검토 했습니다. 첫째는 현행법(「장애인등편의법」)에서 실제 공연장 편의시설이 얼마나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와 현장조사에서의 결과 내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애예술공연자의 의견수렴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장애예술 공연자가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어려웠던 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현재 공연장에서 장애예술공연자가 이용하는 데 부족한 시설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할 공간에 대해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Q.3 연구의 주요 결과와 향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요?

류 : 공연자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의 부족과 소통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대기공간과 무대와의 이동 동선 상 수직이동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 이동을 위한 복도, 승강기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으며, 백스테이지에서의 소음이나 빛에 대한 통제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전문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우선순위를 두고 제도적으로 반영 가능한 범위에 대한 검토하여 단기 적용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빠르게 하여 장애예술공연자가 공연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강 : 장애예술공연자는 공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공연자공간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공연자는 대기공간이 협소할 경우 대기하면서 서로 부딪칠 수 있고, 발달장애공연자는 공연 전 공연장 환경에 적응하는 게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공연자는 승강기나 경사로와 같이 수직이동 수단이 없으면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청각장애공연자의 경우 수어통역사가 없으면 스텝들 간에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례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공연자 공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 것입니다.

Q.4 연구 진행 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류 : 코로나로 현장에 대한 검토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5개소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유사한 환경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가능하면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 더욱 이해가

쉬울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답변자의 수가 좀 더 많이 모여 많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에서 대략적으로 중요한 답변을 알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5 연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강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대상지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증가하고 공연장들이 속속 휴관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방문하는데 있어 협조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백스테이지까지 조사하려고 하면 해당 공연장의 시설관리자가 동행해야 되는데 휴관 상황에서 시설관리자도 출근 하지 않는 상황도 많아 현장조사 협조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종료되고 문화예술계가 다시 활성화 되면서, 더 나은 추가연구들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류 : 공연장에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 다른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 공연 내용에 따라 서도 다른 공간이용 패턴이 있습니다. 이에 공연장은 공연 내용과 공연자에 대해 그 특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장에서 장애예술인이 공연할 경우의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연장에는 관람석과 무대의 레벨차이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접근성과 피난을 고려한 새로운 평면, 단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요구됩니다.

Q.6 공연자 공간의 배리어프리 시설의 필요성

류 : 공연자 공간은 공연 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며, 입장 시 암전이 되는 상황, 빛과 소리에 대해 철저히 통제되는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공연자와 공연 관계자들이 모두 원활히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강 : 장애예술공연자는 장애유형별 예술유형별로 배리어프리 요인에 대해 다양합니다. 공연자 공간의 배리어프리 시설은 누군가에게는 공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지체장애를 가진 공연자에게 있어 수직이동수단과 경사로는 정말 필요한 수단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무대에 접근 할 수 있는 자립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다양한 입법 활동과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더 나은 공연자 공간의 배리어프리 시설이 적용 될 것을 기대합니다.

Q.7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 : 문화를 누리는 것은 관객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연을 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에 대한 공간적으로 공연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에서의 적용과 대국민 교육이 장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문위원 한마디



다양한 영역의 장애 예술인들의 이야기와 애로사항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했던 연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불편함과 애로점들이 해소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시설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중한 꿈들이 좌절되지 않고 더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예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한빛예술단 악장 –박진혁 (시각장애)

그동안 장애인무용공연을 해오면서 공연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우선 휠체어를 타고 이동과 움직임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했고 그 시설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또는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연 예술에 있어서 장애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거에 비해 장애예술가들의 활동이 늘어났지만 공연시설의 개선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연예술의 영역에서 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 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연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개별 단체가 현장에서 요구하거나 건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장예총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각 장애예술가들과 단체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아서 관계기관에 제시한다면 모두에게 필요한 공연시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장애인무용협회 회장–김용우(지체장애)

오랜 기간 동안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장애인 시설, 공공시설 등의 편리한 공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왔지만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생각, 열악한 출연자 대기 공간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음을 느끼고 각 분야의 위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유니버설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첫 발걸음이 되는 중요한 연구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심화된 내용으로 연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주)밀리그램디자인 대표 – 조명민

청각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제 모습이 마치 비장애인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제가 무심해서가 아니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음으로써 장애인식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인식개선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청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식개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연구주제에서는 다른 장애와 달리 청각장애는 신체적으로는 웬만한 비장애인과 같아서 '청각적'인 부분을 '시각적'인 걸로 바꾸기만 해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핸드스피크 아티스트 – 김지연 (청각장애)

먼저 장애인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돕고 문화예술 향유권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면서 다른 장애유형 장애예술인의 대한 공연활동 이해, 공연장 접근과 사용에 대한 어려움, 장애예술인에 맞는 공연장 환경조성 필요 등 고충과 어려움 등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아직 첫걸음이지만 이 연구를 통해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더 나아가 장애예술인들이 마음편히 창작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장애예술인의 역량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를 위해 애써 주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빛예술단 부장 – 박 협

사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예술이라는 분야를 실현하고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단단하게 각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과 예술가분들이 계셔서 내심 뿌듯했었습니다. 우리 무용단은 휠체어 장애인이 주가 되어 활동하는 무용단입니다. 저희도 공연장을 사용하거나 관객으로 극장을 이용하게 될 때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회의를 통해서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느끼는 또 다른 불편한 점들을 들으며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인예술가 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고민이 아닌 예술작품에서의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많은 장애인 분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 역시 즐길 수 있도록 극장이 만들어진다면 서로의 장애조차도 영감이 되는 특화된 극장으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케이휠댄스프로젝트 대표 – 이소민

문화예술기획자로서 공연장, 전시장, 복합예술공간 등 '공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예술가분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활발히 활동 중이신 예술가분들을 통해 현장 또는 준비과정 중 겪게 되는 불편한 점들을 직접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장애예술'과 '공간'의 관계성에 대하여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고, '왜'는 분명하나,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너무 광범위했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조금은 뚜렷해진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구가 장애예술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창작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장애유형별 예술인들에 대한 이해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제안과 방법들이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핸드스피크 대표 – 정정윤

본 연구의 보고서 원문은 장예총 홈페이지 (www.fdca.or.kr) 아카이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장예총 — 문학



제 3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대상 수상작

'까망' 中

– 이 대 연 –

(생략) 고인의 빈소를 공지하는 로비 모니터에 부영근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진우는 행정사무실에 문의한 뒤에야 이미 발인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조문을 받기가 어려워 대부분 삼일장 대신 이일장을 치른다고 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부고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으리라..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그는 서둘러 흡연장소를 찾았다.
영근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건 정오가 다 되어서였다. 간간이 통화를 했지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는 않았다. 수신한 시간은 어제 늦은 오후였다. 조피디와 일찌감치 술과 욕설로 난장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문자메시지를 열자 부고가 떴다. 술이 덜 깬 눈에도 '본인부고'라는 네 글자가 확연했다. 진우는 마음이 황망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비행기부터 예약했다.

담배에 불을 붙이자 짙은 연기와 함께 민트 맛이 입안에 가득 찼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뱉었다. 진우는 담배연기를 볼 수 없는 선천적 전맹은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말을 떠올렸다. 영근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영근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다. 대신 박하사탕을 들고 다녔다. 담배를 피는 친구들 옆에서 오물거리며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는데, 사탕을 건네는 영근의 손은 유난히 하얬다. 그때 베리어프리 영화에 대해 처음 알았다.

"그게 뭔데?"
진우의 물음에 영근은 사탕을 오독 깨물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영화야."
이율배반과 모순형용으로 이루어진 대답이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주어와 본다는 서술어가 맞지 않았고, 종합예술이라고는 해도 시각이미지 중심인 영화를 시각장애인들이 본다는 것도 얼른 납득되지 않았다. 애초에 시각장애를 지닌 영근이 영화동아리에 들었다는 사실부터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친해질 수 없는 이유도 아니었다. 대학 일학년 때였고, 반짝거렸고, 생기로 가득한 시절이었다.

진우는 꽁초를 재떨이에 비벼 끈 후 담뱃갑을 무심히 재킷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문득 의아해졌다. 이미 무언가 들어 있었다. 꺼내보니 반으로 접은 조의금 봉투였다. 화장실에 들어가기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준비한 것이었다. 진우는 다시 망연해졌다.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ATM에 현금을 도로 입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진우는 담배를 한 대 더 피우려다 말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주소록에서 부영근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유족 중 누구라도 받지 않을까 싶었다.
...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야 할 거 아냐!"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공 집사가 나왔다. 과장된 동작으로 지팡이를 두드리며 사내 옆을 지났다. 머쓱해진 사내가 헛기침을 했고 조수석의 젊은 여자가 거보라며 타박을 했다.

진우는 다시 한 번 공 집사를 향해 인사를 한 후 중년 사내가 다소 누그러진 틈을 타 렌터카 업체에 연락한것과 보험사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었다. 한 번 누그러지자 사내는 더 이상 대거리를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커피를 마시려던 것이었는지 안에서 기다리겠다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카페 안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차문을 열어놓은 채 운전석에 반쯤 걸터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뭐 하나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날이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공 집사가 조그맣게 점이 되고 있었다.

"점자는 파이프에요. 꼭 파이프는 아니고, 굵으면 파이프고 가늘면 실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기도 하고 사람과 세상이 연결되기도 하고 사람과 신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점자를 배우고서야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 신과 연결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게 눈이에요. 연결해 주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니까 보이는 거지 보여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말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없는지 말끝을 흐렸다. 멍하니 현무암을 바라보던 진우는 문득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갑자기 소리를 질러 놀래키려 몰래 다가가는 진우를 영근은 금세 알아차렸다.

"나는 다 볼 수 있어. 내 눈은 하늘에 있거든."
영근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놀라워하는 진우를 향해 말했다. 갑자기 이 기억이 왜 떠올랐을까... 진우는 알 수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보험사 직원이 정확한 위치를 물었다. 진우는 일어나 도로가로 보험사 지구언을 마중 나갔다. 멀지 않은 곳에서 차 한 대가 카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난기류 때문에 기체가 흔들린다고 방송이 나왔다. 진우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다. 벨트 푸는 것을 잊어 한 번 주저앉아야 했다. 뒤늦게 깨닫고 안전벨트를 푼 후 일어섰을 때 진우는 잠시 멍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통로를 중심으로 검은 점들이 삼열 종대로 늘어서 있었다. 마치 점자 같았다. 사람들이 점이 되어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저 글자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조피디의 취한 음성이 떠올랐다.

"느와르가 뭔지 모르겟지만 말야, 칼이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지, 사람이 칼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

진우는 갑자기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일어선 채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서있는 것을 보고는 승무원이 다가왔다. 진우는 아무 일 아니라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까만 점들 사이를 지나갔다. (생략)